

완도 백련암 천수관음보살도 등 3건 유형문화재 지정

19세기 불교사·천수관음신앙 연구 중요 자료
'나주 송재사 나세찬 유묵 목판' 문화재자료로

전남도는 18일 '완도 백련암 천수관음보살도' 등 3건을 유형문화재로, '나주 송재사 나세찬 유묵 목판'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완도 백련암 천수관음보살도(유형문화재 제339호)는 소수만 전해지는 희귀한 불화로 화기와 복장이 잘 남아 조성연대(1865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조성경위 등 19세기 불교사와 천수관음신앙 연구의 중요 자료다.
19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기연(鎭

衍) 등 5명의 화승이 참여했고, 도상에 충실한 화면 구성과 백색 선묘의 유려한 필선이 돋보인다.
영광 불갑사 명부전 목조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유형문화재 제340호)은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무염(無染) 등 17명이 참여해 조성한 존상으로 연대(1654년)가 확실하고 조선 후기 전반기 양식을 잘 나타낸 우수한 조각 작품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복장 전적이 보물 제1470-2호로 이미

지정돼 존상 역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을 추진할 가치가 있다.
영광 불갑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 일괄(유형문화재 제341호)은 18세기 초 조각승 초변(楚卮) 등 10명이 조성한 존상으로 연대(1706년)가 확실하고 생동감 있는 상호 표현 등 조각수법이 뛰어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다.
제작연도, 조성장소, 시주자 등을 기록한 발원문은 불사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며 복장 전적도 보물 제1470-1호로 이미 지정된 바 있다.
나주 송재사 나세찬 유묵 목판(문화재자료 제291호)은 조선 전기 학자 나세찬(1498~1551)의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지난 1927년에 새긴 목판으로 생



완도 백련암 천수관음보살도 (전남도 제공)

동하는 기운과 비범한 기개, 자유분방한 필치가 돋보인 서예사의 중요 자료다. 해서체와 행서체, 초서체 등 특정 서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해 기존 유묵 목판과의

비교 연구 자료로도 높게 평가된다.
이밖에 문익점 부조묘 관련 문서 일괄(유형문화재 제110호)은 '보성 문익점 부조묘와 고문서'로 변경 지정됐다. 경상도 산청에서 보성으로 이안(移安)된 부조묘(1855년 건립)는 정면 3칸, 전퇴, 팔작지붕 구조의 고격을 유지해 건물을 포함한 문화재 지정이 필요했다.
부조묘의 건립과 운영 과정, 향사를 잇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 이안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고문서 27점(총 43점)도 새로 확인돼 지정목록에 추가시켰다.
한편 '담양 고세태 분재기'와 '해남 도장사 목조 석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은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예고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D-11

민 의장 후보에 3선 김한중 의원 선출



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의회에서 의총을 열고 의장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

부의장 구복규·김성일 의원
상임위원장 후보도 7명 선출

의장후보는 3명이 나선 가운데 3선의 김한중 의원이 재선의 김기태 의원(순천1)을 결선 끝에 누르고 민주당 단독 후보가 됐다.
부의장 후보에는 구복규(화순2), 김성일(해남1)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상임위 후보는 운영위원장에 전경선(목포5),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욱(목포1),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강정희(여수6), 경제문화관광위원장 이현창(구례),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무경(여수4), 농수산위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내 경선을 갖고 김한중 의원(장성2)을 단독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결과

- 의장 김기태 (24표) 김한중 (28표)
- 부의장 구복규 (27표) 김성일(27표)
- 상임위원장
- 운영위원장 전경선 (30표)
-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욱 (29표)
- 보건복지위원장 강정희 (29표)
- 경제관광위원장 이현창 (27표)
-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무경 (27표)
- 농수산위원장 정광호 (27표)
- 교육위원장 유성수 (33표)

원장 정광호(신안2), 교육위원회 유성수(장성1)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당내 경선에서는 의장 후보는 김한중 의원이 선출됐으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경선에서는 의장지 지 표와는 달리 표심이 분산돼 5대 5로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소속 정당별 의원 구성은 전체 58명 중 민주당 53명, 민생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일당 의회여서 이번엔 선출된 후보가 사실상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당선될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해수욕장도 이젠 '예약제'...신안군 코로나19 예방 차원

내달 13일부터 증도 쟁퐁어·임자도 대광·자은도 백길 등

신안군이 올 여름 일부 해수욕장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신안군은 7월13일부터 8월16일까지 35일간 지역내 13개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가운데 증도 쟁퐁어 해수욕장과 임자도 대광, 자은도 백길 해수욕장 등 3곳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양수산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제

안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이들 3곳의 해수욕장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들은 미리 '바다여행' 누리집을 이용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예약을 하더라도 방문객과 지역민은 안전을 위해 지정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등을 거친 후 입장할 수 있으며, 이용객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2m 거리 확보) 등 해수욕장 지침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증도 쟁퐁어해수욕장은 증도 명물인

쟁퐁어다리를 도보로 걸으며 다양한 개별 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사장 보유하고 있고, 자은도 백길해수욕장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새롭게 도입되는 예약제로 인해 피서객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양해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청정지역 신안만이 가지고 있는 빼어난 해양관광 자원으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 전경.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